

故 조용기 목사 천국환송예배, 한국교회장으로 거행

고 영산 조용기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18일 오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장으로 거행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조 목사의 50년 지기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26)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 목사는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조 목사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고,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쟁쟁히 들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뭐가 급해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느냐”며 “사랑의 반려자이자 평생 믿음의 동반자인 김성혜 사모님을 보내고 뒤따라 가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시고 경외하시던 주님을 뵈고 싶어서 추석에 송편도 못 먹고 가셨느냐”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조용기 목사가 세계 선교와 사회사업 및 민간외교 등에 기여한 엄청난 공로를 열거한 뒤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회자이자 부흥사”라고 평가했다. 또 “영웅도 호경도 열사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조용기 목사의 50년 지기 김장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조 목사님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유가족과 친지와 성도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가신 조 목사님께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조사를 전한 이철 감독(한교총 대표회장, 기감 감독회장)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를 한 사람만 꼽으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조 목사

님을 꼽을 것이고,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럴 것”이라며 “목사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를 얻으셨다”고 했다.

이 감독은 “목사님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여의도라는 지역과 순복음이라는 교단의 한계를 넘어 세계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며 “이제 이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모범으로서,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소

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목사의 제자이자 후임으로서 약력보고 및 감사인사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목사님의 수고와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잘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장례위원장으로 3일간 함께 빈소를 지켜 준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 합동 직전총회장)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조 목사의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가족들을 대표해 “아버지께서는 입을 열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한순간도 나태함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며 “육적인 자식들과 영적인 자식들이 모두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해 온 인류에 구원의 축복을 전파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이장균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수석부목사)의 사회, 장종현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 백석 총회장)의 대표기도, 이태근 목사(기하성 총회장)의 성경봉독, 바리톤 이승왕(여의도순복음교회 나사렛찬양대)의 조가, 김장환 목사의 설교, 추모 영상 상영, 소강석 목사의 추모시, 이철 감독의 조사, 이영훈 목사의 약력보고 및 감사인사, 조민제 회장의 가족대표 인사, 사회자의 광고,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예배 후 장지를 향해 떠나는 조용기 목사의 운구행렬을 눈물로 배웅했다.

송경호 기자

美 복음주의루터회, 사상 첫 트랜스젠더 주교 취임

미국복음주의루터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LCA) 메간 로러 목사가 논란 속에 트랜스젠더로서는 교단 역사상 최초로 주교직에 공식 취임했다.

로러 목사는 앞으로 6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ECLA 시에라 퍼시픽 시노드(Synod)를 이끌며, 북부 캘리포니아와 북부 네바다의 성도 약 200명을 감독하게 된다. 로러 목사는 평소에도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He, She) 대신 ‘그들’(they)과 같은 성중립적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

르면, 로러 목사는 지난 5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노드 회의 5차 투표에서 209표를 얻어, 207표를 얻은 켈리포니아 버클리 출신 제프 R. 존슨 목사를 제치고 주교에 선출됐다. 그녀의 임직예배는 9월 11일 캘리포니아 월넛 크릭에 있는 매튜루터교회에서 진행됐다.

2명의 자녀를 둔 로러 주교는 성명을 통해 “북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위치한 다양한 루터교 공동체가 역사적인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며 신중한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새로운 역할에 발을 들여놓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러 목사는 과거 샌프란시스코 그레이스루터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시 경찰국의 사목 코디네이터(chaplain coordinator)를 역임했다.

로러 목사는 지난 2018년 ‘젠더스펙트럼’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한 캠퍼스 목회자의 딸과 사랑에 빠지면서 성에 관해 개방적이 되었고, 이후의 삶은 정체성을 알아가

위한 긴 여정이었다”고 했다.

독실한 루터교인이었던 로러 목사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이후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당시 로러와 관련이 있던 신도들은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교인들은 원래 그 당시 루터교 정책보다 더 극단적인 사역을 하는 날 지지하지 않았



트랜스젠더 주교인 메간 로러. ©유튜브 캡처

다. 그들은 ‘메간이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먼저 동성애가 되는 것을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이후 퍼시픽루터교신학 대학교에 다녔지만, 학교가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퍼시픽중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2005년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녀는 2010년부터 ELCA가 받아들인 7명의 성소수자 목회자들 중 한 명이다. ECLA는 교인 수 약 330만 명으로 미국의 가장 큰 교파 중 하나로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교인들이 진보적인 신학과 정치적 입장 때문에 교단을 떠났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이웃들의 다정한 베풀이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중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장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번 한번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을 것입니다.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세 장소 이전”
대면/전화상담 예약은 **213.820.3704** E-mail: marhlaw@yahoo.com
사무실 : 213.487.9190 Fax: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vd.,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아무리 문제 많은 인생도 예수님 사랑 만나면 변화돼”

[인터뷰] 하와이 YWAM 채지미 목사

지미 채 목사(55)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에서 DTS 제자훈련학교 스쿨리더로 8년째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가르친다고 보다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을 보듬고 올려준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거칠어(?) 보이는 인생과는 달리 속 깊은 배려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듯 보였다. 평화로운 섬 하와이를 잠시 떠나 오 랜만에 엘에이 도심지를 찾은 그를 만났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여정을 듣다 보니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오버랩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담대하게 외치는 그를 보면서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도 느낄 수 있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아픈 과거와 치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가득 차 있었다. 또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씨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이하는 일문 일답.

- 미국에서의 유년기는 어땠습니까?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기 보다는 언어와 문화 모두 미국 사람에 가까웠지요. 그러나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라 학교에 다니며 어울린 아이들은 모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다가 보다는 무리를 지어 서로를 보호해야 했어요.”

- 방향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었어요. 그 때 아이들 대부분 그렇듯 그 역시 화려한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했지요. 단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살고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들이 하는 대로 마약과 음악에 취해 사는 삶이 자유롭고 그렇게도 멋져 보였으니까요.”

한번은 친구 삼촌의 차를 몰래 타고 뉴욕에서 엘에이까지 오게 됐어요. 세상 문화와 음악에 심각하게 빠지기도 했었지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방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 모습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다’고 믿어지지 어려울 만큼 어스레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성품도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처럼 폭주하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기

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임을 깨달았습니 다.”

- 회복을 경험하셨고 사역까지 하게 되셨는데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어 헤매다 12년 방황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철저히 죽을 수밖에 하는 죄인임을 알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뚝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좋아했던 중독의 사슬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뉴욕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어요. 저를 기다리시던 또 다른 아버지를 향해 돌아간 것이죠.”

-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뉴질랜드 예수전도단(YWAM)에서 DTS를 하다가 제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 공부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회복에 대한 비전으로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고, 당시 교회 뉴질랜드 최고의 합창 팀이었던 12명의 교회 멤버들을 데리고 청년 사역을 위해 한국 이태원과 한국외국어대 앞에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 하와이 열방대학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8년 전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황성주 박사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사역을 준비하던 중 안식월을 맞아 3개월 일정으로 하와이 코나를 방문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음을 느끼고 순종해 회복 학교를 만들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지미 채 목사가 인도하는 하와이 열방대학 회복학교 ©facebook



엘에이 방문중 본사를 방문한 하와이 YWAM 채지미 목사 ©기독일보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체성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무리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들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 2세들도 아무리 한국 문화와 언어, 정서를 가르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인 2세 청소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을 하는데,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면 아무리 문제 많은 인생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먼저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심어주면 하나님 원대한 뜻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일깨워줄 때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드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한인 2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자녀들이 외형적인 크리스천이 아닌 내면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

도를 만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를 기대하기 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무엇이냐고 하겠습니까?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무엇이냐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미국이 영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크게 일어났는데 원인을 알아보니 물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모두 말라있으니 불이 쉽게 붙을 수 있었고 바람이 불어 산불이 크게 번졌다는 설명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불을 보면서 우리의 부흥도 어쩌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

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교회가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상황이 어둡다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와이 코나섬은 하나의 화산 폭발로 이뤄진 섬이 아니라, 다발적 화산폭발이 만들어낸 거대한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만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우리의 부흥도 한 도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님들이 전세계에 계시기에 오늘도 일어날 부흥을 기대합니다.”

김동욱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기가 될까? • 인생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안리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사들: 오대원목사(세수전도단), 주선목사(장신대 영예교수), 이종원목사(세수전도단), 송정원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리(주대표)), 신정민목사(복음전대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CCC공동대표)

• 영의 복음 아래 영적재부흥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미) 속편 ‘본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공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 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코디: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기디온 동산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에들,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수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222

“2021년 가을학기의 문이 활짝 열린다”

9월 13일 멕시코 칼리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의 개학 및 입학식 예배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의 두 학기 일정이 시작되었다.

개학 일주일 전에 재학생들이 먼저 도착했다. 4개월여간 쌓인 학교 안팎의 먼지 청소와 학교 정돈을 돕기 위해 임원들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였다. 그리고 입학식 전날까지 신입생들이 도착하였다. 남부 치아파스주를 중심으로 각 노회장 추천을 받고 선교사 면접을 치른 15명의 신입생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눈동자들은 초롱 빛났다.

개학 및 입학 예배는 총회에서 선임한 우리 신학교의 이사회 임원 목사들이 순서를 맡아 주었다. 4명의 현지 목사들 중 2명은 우리 신학교 동문이었다. 동문들은 이제 곳곳에서 노회와 총회의 리더십이 되어 그들의 영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은혜롭고 활력있는 예배를 마친 후 친구 식탁은 타코 파티였다. 타코 식사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행사가 있는 특별한 때 먹는 특식의 개념이다.

우리 신학교는 개학하면 첫 2주간은 전교생이 성경 읽기 주간을 보낸다. 오전 8시부터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제외하곤 밤 9시까지 성경 읽기에 전념한다. 모두가 1독 이상씩을 하게 된다. 우리 신학교의 4년 과정 동안 한 학생이 최소 10독의 성경 읽기를 하게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문 목사들의 한결같은 최고의 시간은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 시간을 꼽는다.

2주 동안 한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성경 신구약을 계속 읽는 것은 매우 힘들다. 처음 경험하는 신입생들은 2, 3일 지나면서 몸살을 앓는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것을 학생들은 느끼게 된다.

또 매일 새벽기도를 전교생이 한다. 인도자, 기도자, 찬양 인도자, 설교자, 대표 기도자 등을 날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처음엔 4학년들과 임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시작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전교생이 순서 배정을 맡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예배 진행을 하게 된다. 필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훌륭하게 진행하는 새벽기도의 체계에 감격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신학교 타임 스케줄은 이어져 간다. 아직 코비드 확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진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재학생 중에서도 가족의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치료 후 격리 시간을 지키느라 1명이 아직 못하고 있다.

한 학기에 총 11과목이 진행된다. 이번 학기부터는 8과목은 직접 대면 강의로 교수들이 직접 신학교로 와서 강의한다. 한 과목을 한 주 또는 두 주 동안 풀타임으로 하게 된다. 3과목은 줌 영상으로 하게 된다. 줌으로 같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10명 정도 된다. 교수들의 강의안 초안인 실러버스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모처럼 대면 강의를 하게 되는 교수들도 마음이 한껏 설레는 듯하다. 멕시코에서 훌륭하게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맡은 강의를 매우 책임 있게 우수하게 하는 교수들이다.

각 과목을 마치면 교수는 학생들의 과제와 시험을 통해 성적을 내게 되고, 또한 학생들은 교수와 강의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강의에 대한 아쉬운 점, 바람 등을 기술하는 학생들의 평가가 섬세하고 예리하다.

우리 신학교는 4년 과정으로 전교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모든 재정은 후원 교회와 후원 이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모두가 멕시코 교회의 목회자와 음악 지도자 및 교사 등으로 사역하게 되고 우수한 믿음의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므로 모든 학생이 다 영적 지도자적 역량을 가져야 하겠기에 전교생이 장학금의 대상이 된다.

과목 낙제자는 그 과목을 재수강할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일단은 귀향 조치를 취한다. 한 학기 후에 부모님 추천과 목사님 추천을 다시 받아 와야 한다. 학교의 체벌 규정이다.

재학 중에 학생들 연애는 금지다. 발각되면 정학 조치를 받는다. 도둑질, 거짓말, 폭력, 폭언(욕) 등도 벌을 받는다.

오랜 방학의 쉬를 깨고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정은 오늘도 활기차게 움직인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경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 “헤롯 아그립바1세(5)”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사도행전12장은 교회의 위기를 전합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첫 대상자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유대인들이 좋아 하는 것을 보고(행12:3) 힘을 얻는 아그립바1세는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이 위기에서 교회는 더욱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편 12장 후반부는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립바1세의 죽음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함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헤롯 아그립바1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죽으니라 (행12:21~23)’ 누가는 헤롯의 죽음의 이유를 헤롯의 교만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그립바1세가 할아버지 헤롯이 만든 가이사라 극장에서 자신의 위엄을 과시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 황실의 든든한 지원을 받던 헤롯 아그립바1세는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 극장에 금과 은으로 치장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의 환호를 유도하다가 급성 복통을 호소하였고 5일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은 그가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사망했다고 해석합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의 아버지는 헤롯대왕이 한때 후계자로 내정했던 아리스토틀로스입니다. 헤롯이 아리스토틀로스를 처형하자 남편의 죽음을 본 베니게가 자녀들과 함께 로마로 피신합니다. 베니게(혹 베르니케; Bernice)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동생 드루수스의 아내 안토니아(Antonia)와 가까이 교제하며 아들을 로마 황실의 자제들과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아그립바1세는 여러 비행으로 삶을 망칩니다. 어머니 사후에 제

산을 탕진하고 빛 독촉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어 유대로 귀환하는데 너무 어려워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나인 헤로디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헤로디아의 남편 헤롯 안디바는 조카이자 처남인 아그립바1세를 디베라 재정부관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아그립바1세는 누나 헤로디아와 매형 안디바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헤롯 아그립바의 혈통을 부러워하던 매형이자 삼촌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헤롯 아그립바의 실수를 빌미삼아 아그립바를 쫓아냅니다. 헤롯 안디바를 떠나 수리아에 잠시 머물렀던 아그립바1세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갖지 않은 빛이 있어 투옥 위기에 처하자 티베리우스 황제 동생의 아내 안토니아가 돈을 갚아 주고 구해 줍니다. 안토니아는 어머니 베니게의 친구이고, 3대 황제 가이오 칼리굴라의 할머니요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어머니입니다. 이때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와 교분을 쌓습니다. 같이 자랐던 그들을 다시 만나 우정을 쌓습니다.

이렇게 아그립바1세가 로마제국의 3대 황제와 4대 황제와 인맥을 쌓았고 두 황제의 등극에 공신이 됩니다. 아그립바1세는 티베리우스 사후에 가이우스 칼리굴라를 위기에 구하려다 감옥에 6개월간 투옥됩니다. 마침내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에 등극하자, 황제로서 첫 결정이 자신을 위해 감옥까지 갔었던 아그립바를 유대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3대 황제인 칼리굴라가 사

망했을 때 아그립바1세는 동갑의 친구 클라우디우스와 원로원을 중재합니다. 다리불구요 말더듬이였던 클라우디우스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원로원을 아그립바1세가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아그립바1세의 결정적 도움으로 로마 4대 황제에 등극한 클라우디우스는 헤롯 대왕이 지배했던 팔레스틴 땅 전체를 헤롯 아그립바1세가 차지하게 함으로 아그립바1세를 명실상부한 유대 왕으로 자리 세웁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는 헤롯 가문 왕들 중에 가장 스펙이 좋은 왕입니다. 그는 하스몬가의 피를 가진 왕입니다. 그의 할머니가 하스몬 왕족 출신인 마리아네였습니다. 그는 또 로마에서 교육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나아가 로마 황제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 인맥 부자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존중하는 정책을 펴면서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의 피해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때 추방되어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아그립바1세는 이런 클라우디우스 황제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야고보 순교나 베드로 투옥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나사렛 칙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그립바1세 행위입니다. 그는 성전 문화와 회당의 전통을 지지하는 제스처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실의 적극적 후원과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 한껏 힘을 얻은 아그립바1세의 교만이 가이사라 극장 연설과 신격화로 나타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12:22~23)’ 유대 왕으로 자격(교육, 혈통, 인맥)을 갖추었던 헤롯 아그립바1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 시킨 그는 교만의 끝에서 죽고 맙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7.2 강진, 열대성 폭풍

아이티 긴급 구호 요청

규모 7.2의 지진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으로 최소 1,419명이 사망하고 6,900명이 부상했으며 150만 명의 집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간이 건물과 천막으로 구성된 아이티 마을은 거의 폐허 상태여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교계 원로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 한국교회 미스바 광장 열었다”

김장환·김삼환·이동원 목사 등, 위로예배 드려

14일 별세한故 조용기 목사에 대한 조문이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된 조문소에서 15일 아침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계 원로 목회자 등이 이날 오후 조문소 옆 별도의 공간에서 유족들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렸다.이 예배에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비롯해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오정호 목사(세로남교회) 등이 참석했다.



교계 원로 목회자들이故 조용기 목사 유족 등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기봉 장로(극동방송 사장)가 사회를 맡은 예배에선 오정현 목사가 기도했고, 강장현 목사(극동방송 부사장)의 성경봉독(사무엘상 7:5~14) 후 김삼환 목사가 ‘미스바 광장의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최성규 목사가 했다.

먼저 기도한 오정현 목사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을 계승하길 원한다. 조 목사님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며 “우리들도 남은 인생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조 목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미스바 광장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이 땅 위에 임하길 바란다”며 “조용기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자였다”고 했다.

김 목사는 “1958년 조 목사님은 천막 교회에서 시작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천막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의도 광장, 미스바의 조 목사님을 우리는 늘 생각한다”며 “한국전쟁 이후 절망과 상처, 한 곳도 성한 곳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여의도로 보내 미스바 광장을 열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조 목사님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셨고, 한국교회는 일어날 수 있었다. 한국의 밤 하늘은 십자가로 밝혀졌다”며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목사는 “미스바 광장은 오늘

여의도 광장과 같다”면서 “만약 60~70년 80~90년대 광장의 집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 집회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전 분야에서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이끌어 오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했다.그는 “영적 부흥이 없으면 다른 부흥은 절대로 안 된다. 조 목사님은 여의도에만 불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에 불을 붙이는 세계 미스바의 주의 종이셨다”며 “남미나 북미,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주의 종을 찾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느 교단이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국교회는 조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분의 영성운동과 기도운동을 이어받지 않은 곳, 그것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는 조 목사님의 사역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분의 사역을 꼭 기념하고 잘 이어가면서 빛내야 할 것”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조 목사님의 유업을 계승한다면 다시 광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故 조용기 목사 조문 발걸음… “큰 지도자 잃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된 조문소에서故 조용기 목사에 대한 조문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교인들이 조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14일 별세한故 조용기 목사에 대한 조문이 15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됐다. 조문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나디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하는 교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문은 17일까지 가능한 가운데, 첫날 각계 주요 인사들이 조문에 나섰다. 대권 주자들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이날 조문소를 찾았고, 그 밖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조문했다.

이들은 조문소에 비치된 방명록 글과 별도의 추모사를 통해 조 목사의 별세를 애도했다.

김부겸 총리는 방명록에 “헌신으로 한국 개신교의 큰 부흥을 이끌어 주신 조용기 목사님의 영면을 국민과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정세균 전 총리는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큼니다. 천국에서도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각각 적었다.

이재명 지사는 “성전 식탁에서 배운 목사님의 함박웃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께 늘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조

용기 목사님의 편안한 안식을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방명록에 “목사님, 하늘 나라에서도 기도해주세요”라고 썼다.

홍준표 의원은 “편안하게 가십시오. 하나님 곁으로”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느님의 품에서 영면하시길 기도드립니다”라고 각각 방명록에 남겼다. 원희룡 전 지사는 “폭포같은 말씀으로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이끄신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깊이 기립니다”라고 적었다.

송영길 대표는 “故 조용기 목사님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뵈고 영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안철수 대표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로 이어진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황희 장관은 “선교활동과 구제활동에 평생 전념해오신 목사님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라고 각각 적었다.

교계에서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호 목사(세로남교회) 등이 조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조문소 옆 별도의 공간에서 유족들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소강석 목사 “조용기 목사, 초대 교회 이룬 능력의 목회자”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14일故 조용기 목사를 추모했다.소 목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목회자이셨다. 빌리 그레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린 분”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고 조 목사님은 20대인 1958년 대조동에서 천막 교회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시작했고 이후 서대문으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겨 오늘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루셨다”며 “그는 50년 간 목회를 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능력의 목회자였다. 만약에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크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조 목사님께서는 혼돈과 격변이었던 20세기 후반에 복음으로 시대를 이끈 위대한 설교자이자 영성가로서 한국교회와 세계의 부흥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라며 “저는 신학생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한 번



소강석 목사 ©한교총

도 뵈었지만 조 목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0년 10월 15일, 조 목사님이 한 마디로 제 마음의 우상이셨다”고 했다.

그는 “단일교회로서 최대의 대형교회를 일구기도 하셨지만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NGO 캠퍼프 설립과 한철운동,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과 행복나눔을 통해서 수천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무료시술을 해 주었고,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도 추진을 해오셨다”고도 했다.

소 목사는 “다시 한번 고인을 애도하며 순복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며 “특별히 조희준, 조민제(국민일보 회장), 조승제(한세대 이사)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저도 장례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빈소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온라인교육의 선두주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한국, 미국 내 24개 주, 그리고 세계 30개국에서 WMU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전 학위과정 ATS, ABHE 승인
- 100% 온라인 프로그램
- 미국 내 우수 기독교대학 편입 및 상위과정 진학 가능

- 신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학
- 수료과정, 준학사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

주소: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388-1000, admissions@wmu.edu | 웹사이트: www.wmu.edu

"故 이장식 박사님은 한국 신학계 거목... 교회사학계 선구자"

한신대·기장 인사들 참여한 가운데 17일 천국환송예배 드려

故 이장식 박사(해암신학연구소 초대 소장, 한신대 명예교수) 천국 환송예배가 17일 오전 8시 봉담장례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한신대 및 기장 총회 관계자들이 함께 해 자리를 지켰다.

임명규 목사(남부산용호교회 원로, 기장 총회 증경총회장, NCKK 증경회장)는 '소망의 위로'(살전 4:13-18)란 제목의 설교에서 "(이장식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아프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안식하시게 되었다"면서 "참으로 그분이 남기신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와 향기를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더욱 깨어서 그분 가진 길을 가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임 목사는 "100세를 넘겨 장수하신 우리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존경스럽다"면서 "오늘 함께 천국환송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특별히 후진들에게 더욱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 목사님의 뒤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사를 전한 김주환 교수(한신대 신학대학원장)는 "선생님의 일생은



지난 9월 17일 오전 8시, 봉담 장례문화원에서 故 이장식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열렸다. 이 박사의 마지막 발걸음을 사진에 담았다. ©김규진 기자

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요 사랑과 진리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직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온 역사였다"고 말하고, "한국 신학계의 거목이었으며 교회사학계의 선구자, 기독교사상과 신학의 역사를 종합하고 체계화시키는데 열정을 쏟으셨던 분"이라며 "신학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학적 자유성과 복음주의 진영의 교리적 신학체계를 통전적으로 결합시켜 역사신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은 '학문과 경건'의 두 수레바퀴를 신학교육 현장에서 구현하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고, 강의실 밖에서는 한없이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교육자였다"고 기억한 김 교수는 "선생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믿음의 유업은 선생님의 사랑한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며, 선생님의 학문적인 유산은 수많은 제자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장식) 목사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먼저 말하고, "목사님의 자서전 '장파에 배 띄우고'(2001, 한들출판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없는 감동을 받았던 바 있다"며 "격량이 이는 인생, 고해라는 이 바다를 (이장식) 목사님이 헤쳐가셨고 이제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강 총장은 "우리 모두, 그리고 한신대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크고 높은 격량이 일 때, 우

리의 스승님 (이장식) 목사님께서 헤쳐가신 그 길을 깨끗하게 헤쳐 나가자"고 했다.

이외에도 예배는 임명규 목사의 집례로 나광덕 장로(광명교회)가 기도했으며, 마지막 유족 인사 후에는 기장 총회장 이근희 목사가 축도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별세한 해암(惠岩) 이장식 박사는 1921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으며, 100세 신학자로서 한신대와 캐나다 퀸즈신학대를 졸업하고 뉴욕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아퀴나스 신학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해 "평생을 신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고 기억하고, "한신대를 비롯해 장신대, 숭실대, 고려대 등에서 가르쳤으며, 은퇴 후에는 70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케냐장로교 신학대에서 교수로, 선교사로 15년 동안 봉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85세 나이로 귀국한 뒤에도 해암신학연구소를 통해 한국 신학계를 이끌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 광명리의 집에서 소박한 노년을 보냈다"고 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사상사' '현대교회학' '평신도는 누구인가' 등이 있다.

김규진 기자

감리회 총청연회, 교회마다 평등법 반대 현수막 게시한다



지난 8일 회의 후 유명권 감독과 동성애대책위원장들. ©총청연회

연회 주관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 도 시작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청연회(감독 유명권 목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정치권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에 대처하고, 성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법이 왜 위험한 법인가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연회 소속 교회 건물 외부에 평등법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천안 소재 연회본부에서는 이를 위해 총청연회 유명권 감독(천안남교회)과 총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이구일 목사) 소속 위원 8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기조발언에서 유명권 감독은 "평등법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근거가 될 것이 명백한 악법"이라며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만 4차례나 발의되어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등적 가족의 정체성을 허물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법안인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이 해당 소위원회에서 통과 직전까지 갔다"며 "신앙의 자유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 이런 악법 저지를 위해 우리 연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전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구

일 목사(서산제일교회)는 "평등법은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여 기독교를 허물려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동시에, 비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상충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악법"이라며 "현수막 게시를 통해 충남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평등법 반대 현수막은 총청연회 남산교회연합회(회장 이강웅 장로, 태안소망교회)의 적극 협력으로 각 지방 남산교회 연합회에서 지역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여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내용들은 대부분 성경적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왜곡된 성의식과 결혼관을 심어주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성경적 성교육 강사양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들이 각 교회에서 성경적 성과 결혼, 가정,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다음 세대를 성경방종과 타락으로부터 지켜내고, 나아가 공교육 현장에도 강사로 진출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대웅 기자

기침 신임 정·부총회장에 고명진·김인환 목사 당선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제111차 총회가 16일 대전 디딤교회 등 24곳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신임 총회장에 는 단독 입후보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고명진 목사(왼쪽), 신임 제1부총회장 김인환 목사(오른쪽)

이어 전체 대의원 1,262명 가운데 988명이 참여해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1부총회장 선거에선 기호 2번 김인환 목사(함께하는교회)가 544표를 획득해, 기호 1번 이윤 목사(대전은포침례, 420표)를 제쳤지만, 당선 조건인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명시한 총회 규약에 따라 2차 전자 투표를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윤 목사가 기권을 선언해 결국 김인환 목사가 제1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신임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저는 라이즈업 뱃티스트를 통해서 지난 거룩한 역사를 이뤘던 전임 총회장님의 아름다운 계승을 잘 이뤄내고, 전국적으로 복음화의 열망을 크게 일으키며 다음세대를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총회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제111차 기침 총회장으로 세움 받은 제가 그 무엇보다 복음의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오직 예수·오직 복음에만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신임 제1부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해 2000년생을 지원하겠다. 3040 목회자의 현장 사역을 지원하겠다. 5060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를 위한 현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총회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이 밖에 교단 내 성폭력 대책기구를 신설했고,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노형구 기자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현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正 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차림 손결하고 스나우터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하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파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이만2세를책임지며, 이만2가정을치료하며, 선교명령을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oin 교차)
T. (213)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점심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수, 금) 오전 6:30(토, 일)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점심예배)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족들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 생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신영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종파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찬양기도회(마침잔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 1부 오전 7:00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3부 오전 11:00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침년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hyun.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유족들부 오전 11:00
수요종파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2:00
유족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EM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유족들부 오전 11:00
수요종파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트럼프 전 대통령, 9.11 기념 집회서 "악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튜브 영상 캡처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1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열린 예배와 기도 모임인 '렛 어스 워십'(Let Us Worship)에서 영상 메시지를 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저녁만큼 미국인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절한 때는 없을 것"이라며 "9.11 테러 희생자들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9.11 테러로 희생된 모든 무고한 이들을 기억한다. 그들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을 영원히 서약한다"며 "테러가 발생한 후 며칠 동안 커다란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준 경찰관, 소방관들, 긴급구조대원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들과 가족들을 위해 "여러 분에게 우리의 영원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했다.

연설 중간에 그는 뉴욕소방서 마이클 저지 신부에 대해 "첫 번째 항공기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을 때, 그는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한다"며 "오늘 그의 이야기는 9월 11일에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탑의 기둥에 세운 강철 십자가가 있는 그라운드 제로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께서 답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오늘날과 같이 수 천 명의 미국인들이 모여 사랑하는 나라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 포이트와 '렛 어스 워십' 팀은 미 전역 132개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려왔다. 강혜진 기자

'백신 의무화' 조치에 남침례신학교 총장들 "국가 분열" 우려



미국 남침례회 본부. ©남침례회 홈페이지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미국 남침례교 총장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밴티스트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알버트 모홀러 남침례신학교(SBTC) 총장은 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권장하지만 의무적 접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홀러 총장은 "우리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민간 고용주에 대해 발표한 명령에 대해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미접종자를 두고 "우리의 인내심은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 당신의 거절이 우리 모두를 희생시켰다"고 최근 발언한 것에 대해 모홀러는 "(바이든의)말과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담 그린웨이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SBTS) 총장도 모홀러 총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린웨이 총장은 "의학적 이유나 양심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과 기관에 대한 의무 예방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행동은 이미 심각하게 분열된 국가에 더 많은 분단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대니 아킨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SBTS) 총장도 "백신 접종은 국민 건강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노동부의 규제 조치를 통한 긴급 명령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늘 경계한다"고 답했다.

아킨 총장은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대통령의 협박조의 언어가 골칫거리와 불필요한 분열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면서 "사법 제도가 도를 넘은 조치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제이슨 알렌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MBTS) 총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나는 백신 접종을 선택하고 권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와 MBTS와 같은 고용주들에 대한 명령이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이나 매주 검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의 도를 넘은 조치가 법정에서 이의제기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도전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미 듀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NOBS) 총장도 바이든의 강제 명령이 줄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미 듀 총장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모든 학생과 직원이 해당 백신 중 하나를 접종받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바이든의 최근 명령은 매우 유감이며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지침에 따라 미국 고용주들의 권한은 노동부에 의해 규제되며, 직업안전 건강관리청(OSHA)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벤 맨드럴 라이프웨이(LifeWay) 회장도 케빈 이젤 북미선교위원회(NAMB) 회장은 정부의 추후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고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남침례교 집행위원회, 여성교회 및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O)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이미경 기자

美 남침례회, 모든 선교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IMB)는 최근 국제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선교사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IMB는 유행병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국제선교이사회(IMB) 선교사와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현장 면접 오리엔테이션'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집회에 모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백신 접종은 또 훈련과 회의를 위해 선교사들과 만나는 IMB 스태프들에게도 필요하다. 또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이 선교사들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폴 치트우드 IMB 회장은 "비록 이번 결정이 예외적으로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미전도종족들과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남침례회를 섬길 때, 사역 효율을 극대화하기 하기 위해 팀원들의 영적·육체적 건강을 더욱 뒷받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남침례회가 발표하는 백신 관련 지침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1980년 IMB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예방 접종 요건을 도입한 후, 현장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예방 가능한 질병 빈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관리들은 이 같은 (백신) 정책으로 일부 근로자들과 스태프들이 IMB에 가입하지 않거나 떠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IMB와의 동역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해외 선교에 있어 IMB와 함께 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B 측은 "우리는 IMB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진다"며 "코로나19의 도전은 계속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끔찍한 질병을 얻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립된 채로 남아 있다. 대유행병이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많은 정보들이 도착하고, 또 새로운 전염병에 직면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트위터, 백신·마스크 반대한 美 목사 계정 영구 정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반대해 온 그렉 로크 목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됐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그렉 로크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위터가 나의 계정 '웰컴 투 아메리카'(Welcome to America)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고 알렸다.

테네시주 내슈빌 근처 마운트 줄리엣에 위치한 글로벌비전성경교회(Global Vision Bible Church) 담임인 로크 목사는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부활절 설교에서 "의학적 이유로 의사의 권고를 받지 않는 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권면했다. 그는 "여러분이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교회에 올 때는 바보 같은 마스크를 벗으라! 부활절에 전한다. 바보 같은 마스크를 벗으라! 미쳤다고?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혼자 마스크 두 개를 쓰고 온다. 미쳤다고? 그게 바로 정신 간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로크 목사는 또 지난달 설교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지 말라"며 "과거 텔타 변종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께 말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 백신 접종을



그렉 로크 목사. ©페이스북

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트위터는 "코로나19에 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트윗 삭제, 라벨 표시 및 계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정책의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계정은 영구 중단된다.

로크 목사는 트위터를 '검열 나치'로 언급하며, 변호사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김우준 담임목사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족 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20)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8)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화-토)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판교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존 소렌센 목사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배워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복음주의 원로 지도자인 존 소렌센 목사(John B. Sorenson)가 기고한 '예수와 복음의 스토리텔링 기술'이란 제목의 칼럼을 최근 소개했다.

존 소렌센 목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번콕 카운티에 위치한 '국제전도폭발(Evangelism Exposition International)'의 회장이자 CEO이다.

다음은 그가 제안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기술 4가지에 관한 요약이다.

1. 짧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데 몇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의 요점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것을 나눴으며 간략했다. 나는 2-3분 이하의 짧은 간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2.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라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분은 농사짓는 일, 회당에서 동전을 내는 일, 다양한 유대교 전통에 대해 말씀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고르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는 주의깊게

경청하라.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3. 기독교 전문용어를 피하라
예수님의 비유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 주셨지만, 단순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그분의 언어는 분명하고 이해하기가 쉬웠다.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들은 "거듭남"이나 "성화"와 같은 기독교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의 언어를 단순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하라. 하나님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단어나 구절들로 그들에게 혼동을 주어서 안된다.

4.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라
예수님은 긍정을 강조하셨다. 그분의 이야기는 생명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전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변화를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적 본성과 과거의 삶의 공포만을 강조한다면 요점을 놓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당신의 삶을 간략히 요약하되,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이 당신의 삶에 이루신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 이는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의 반응을 불러온다.

김유진 기자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아프간 교인들, 탈레반 피해 은신하며 '연락두절'

“국제사회, 현지 소수종교인들의 진정한 고통 다뤄야”

미국에 본부를 둔 사역 단체의 대표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재집권으로 촉발된 위기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현지 협력자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국제기독교연대(ICC) 남아시아 책임자인 윌리엄 스타크(William Stark)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미군이 철수한 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현지 지교회와 동역해 온 많은 사역팀들이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씌임 없이 일해 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현재 아프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함에 따라, 침묵을 지키며 탈레반의 수색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고 있다.

스타크는 “기독교인들은 현재 공동체에 대한 거센 위협으로 인해 숨

어 있다”면서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는 기독교인 남성의 딸들을 납치해 탈레반 조직원들과 결혼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또 다른 기독교인 남성은 탈레반에게서 ‘당신의 집은 우리의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연락망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연락처를 변경했다. 그들은 시골에서 숨어 지내며 외부와의 연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아프간의 기독교 인구가 1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이곳에서 가장 큰 소수종교 중 하나가 됐다. 아프간은 인구의 99% 이상이 이슬람교도다.

스타크는 “아프간의 모든 소수종

교인들이 탈레반의 지배 아래 위협에 처해 있으나, 기독교인들은 특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그들 중 대다수가 이슬람에서 개종했기 때문이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이슬람교를 떠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스타크는 “탈레반은 기독교인들을 배교자, 범죄자,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로 여긴다”고 했다.

그는 “박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아프간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통한 외교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특별한 지위”라며 “많은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여권도 없어서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없는 상태다. 또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ICC는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아프간 기독교인들에게 세계 다른 곳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와 관련, 그는 “미국 내 탈레반 폭력 사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프간인들만 국내에 들어오게 할 경우,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와 같이 취약한 사회에 속한 이들은 미군과 일하는 그룹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이들에게만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면,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착할 자격을 가진, 취약한 이들을 쫓아내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가튼 미셔너리스 인터내셔널’(Forgotten Missionaries International)의 느헤미야는 최근 미션 네트워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교 목적으로 아프간을 여행하다가 실종된 압다르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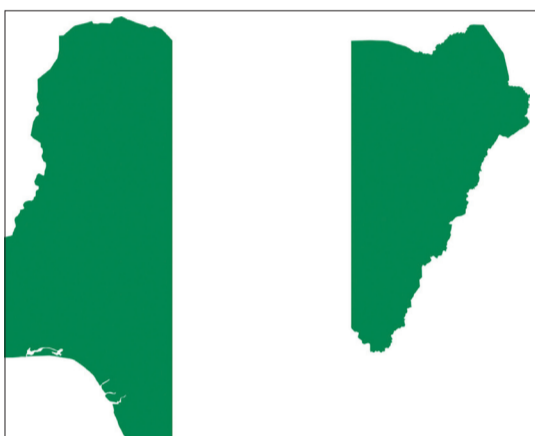
느헤미야는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다. 아프간 출신으로 파키스탄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는, 지난달 전도 목적으로 아프간에 간다고 했다.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한 지 1주일이 넘었다. 우리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받을 것인가, 이를 거절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용기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최근 국제사회가 아프간의 소수종교인들의 ‘진정한 고통’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서 목사 포함 11명 사망... “국제사회 조치 촉구”



©Pixabay

최근 폭력사태로 목사를 포함해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이지리아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실라스 야쿠비 알리 목사를 비롯한 희생자들이 풀라니 공격자들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카두나 주의 장곤 카타프 지방 정부 지역(LGA)에서 발생했다.

알리 목사는 ECWA(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키보라-아샤아오스의 담임이었다. 지난 11일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카판칸 마을로 출발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가 주일예배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회는 수색을 시작했고 시신이 자택에서 약 0.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오토바이에 연료가 떨어졌을 때 매복공격을 당한 후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에는 총상과 함께 베인 상처가 모두 보였다고 CT는 전했다.

나시르 엘 루파이 카두나 주지사는 목사의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안 기관에는 “극악한 살인의 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알리 목사의 사망 사건은 쿠르민 마사라 지역 농지에서 일하던 두 젊은이가 공격을 받아 숨진 지 며칠 만에 일어났다.

지난 12일에는 또 다른 마을에 대한 공격으로 임산부 2명을 포함하여 최소 11명이 사망하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 중 10명은 알리 목사가 감독하는 다른 교회에 출석했고 다른 한 명은 지역 가톨릭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세인트마태 가톨릭교회 신부인 벤스 야쿠사 신부가 무장 공격자들에 의해 납치됐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카두나 주는 납치와 강도 활동의 진원지가 되었다”면서 “남부 지역 대다수 기독교 공동체가 지난 10년 동안 ‘가차 없는’ 공격을 경험했다”라며 폭력사태를 규탄했다.

CSW 설립자 머빈 토마스는 야쿠사 신부의 납치 사건에 대해 “폭력에 대한 종교적 요소의 존재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인 치디 오딘칼루 교수는 강력한

군대 주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왜 그러한 많은 폭력 사건으로 황폐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카두나 주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수비대가 많은 주다. 주에 있는 군사시설 (숙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의 감시 하에 전체 지역사회가 정리되고, 추방되고, 파괴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국가가 공모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토마스 대표는 “폭력의 정도가 끔찍하다”라며 카두나 주지사가 발표한 행동 요구 성명을 환영했지만 “그와 다른 나이지리아 관리들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비참할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처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은 일이 횡행하고 폭력이 전이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대표는 “나이지리아는 현재 연방과 주 당국이 민병대 폭력으로 인한 실존적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나이지리아와 국제사회에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당국이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늘리고 나이지리아가 안전해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무장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국제사회가 나이지리아 당국에 압력을 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올해 말 이라크 미군 철수... 기독교인 박해 증가 우려”



중립적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오픈도어선교회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계획은 이 지역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이자 복음주의 커뮤니케이션 간부인 조니 무어 목사가 최근 보수평론가 글렌 벡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동 기독교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인터뷰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서의 전투 임무를 종료하지만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과 조인은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벡은 무어 목사에게 “올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부상을 둘러싼 모든 절망적인 일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라크인들에게)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고 납득시켜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무어 목사는 “나는 항상 지금 당장 탈출하라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내가 기독교인이나 야지디족 또는 이라크에 있는 다른 위협받는 공동체에 속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빠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보호를 위한 IS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한 무어 목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를 지배했던 이슬람국가(ISIS)를 언급했다.

추산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에는 기독교인이 약 150만 명 있었지만 그 숫자는 25만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미경 기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5-2332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ABHE),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포항공대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843-0301, Fax: (323)8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故 조용기 원로목사님을 추모하며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5~6일씩 대절환 버스를 타고 백만 명이 넘게 모여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적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때 불었던 성령의 바람은 브라질 개신교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 목사님의 성회는 가는 곳마다 이루 셀 수 없는 기록적인 인파가 운집했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치유와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국인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며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재를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역임하며 제3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사람이 이루었다고는 볼 수 없는 구제, 사회복지, 인권, 환경 등에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 목사님을 이런 업적보다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미주 북음화를 위해 LA를 방문하셨을 때, 성회를 마치신 후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각종 사람이나 언론의 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그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한국에서 마지막 보였을 때도 부족하고 못한 제자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위로와 사랑을 대신하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은 떠나셨습니다. 20대 청년이던 저의 가슴에 불을 붙여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에 선교사로 보내셨던 그분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과 함께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심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십시오. 조용기 원로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부흥의 주역이자 산 증인으로 사용하신 **故 조용기 원로목사님**께서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 목사님을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1936년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 한국전쟁으로 피난민 신세가 됐고, 전후 폐허가 된 땅에서, 그것도 폐쇄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한 청년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의 생각, 꿈, 믿음, 말 속에서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대조동 공동묘지 옆 개밭을 빌려 미군이 버린 천막을 치고 시작한 교회는 기독교 2천 년 역사상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기조차 쉽지 않던 때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해 72개국에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997년 브라질 쌍파울루에서 가졌던 성회는 장소가 취소되는 등 많은 방해와 어려

나의 삶의 중심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사람들이 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신앙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가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일 것이다.

얼마 전 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지금 시대의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니 그리스도의 신성이니 몸의 부활 따위는 현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또 책에서 저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근대화된 종교"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우리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는 "근대화된 종교"라고 장담하기도 하였다. 물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종교는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문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시편 1편 1절 -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신을 믿는 쪽으로 나아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세속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인간은 영혼이 없는 물리적 존재로서, 우리 머릿속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옳은 판단이라는 즉 하나님을 거부함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세속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저 정서적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근대화 되면서 종교는 쇠퇴해 가고 있고 그로인해 인간은 많은 오류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흑자는 지금 시대에도 신앙의 자녀들이 더 많다고 반증하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강조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코 지금의 시대가 현대사회라고 하여 개인의 결단과 믿음이 변질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칼럼의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우리 인간의 믿음의 열망은 결코 물질과 화학 그리고 유전자로 변환될 수 없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만일 당신에게 평안이 없고 불안과 불평과 불만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식하십시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엄연히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동죽목사
박성원 목사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네 집 아들이요?"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 봐. 내가 360도 돌려차기로 쓰러뜨려 버릴 테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지금 이 순간 트랙터가 다시 굴러 떨어져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쓰러진 운전사를 혼신의 힘을 다해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끄집어 내 놓혀 놓고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제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운전 기사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 다 죽어 가는 운전 기사를 살려 주신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 운전 기사를 살려..."

그 순간 나무 그루터기에 겨우 의지해 있던 트랙터가 웅성웅성거리더니 눈 덮인 스키장을 미끄러지듯 굴러 떨어졌다. 트랙터가 저 아래로 떨어지며 이리저리 부딪치고 갈기 갈기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저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신세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에 온몸이 오싹해서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

는데, 운전기사가 눈을 뜨더니 한다는 말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운전기사는 방금 전 극락에 갔다 왔으면서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었는데 누군가 너는 세상에 돌아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고초를 당하다가 비참하게 육신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에도 운전사의 말이 기분 나빴다.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다 죽어도 죽음은 야속한 일인데, 끔찍한 죽음을 맞는다니, 얼마나 기분 나쁘냐.

'이 간나 새끼, 다 죽은 것을 기도해서 살려 놓으니 기껏 한다는 말이 재수 없는 말만 주절대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까무러쳤더라면 다른 말을 듣게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러면서도 뭇 모르고 지껄인 말에도 나를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인데 무슨 일인들 계획하지 못하실까, 이미 쏟아진 물,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를 당하려면 당해야겠지, 했다.

그 후 내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면 이때 운전사가 한 말을 떠올리곤 한다. 내가 당한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쌓음 상급을 위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고통을 복으로 여기며 모든 곤란을 극복하는 것이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주여 내가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랄 때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굳세게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전도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360도 사건으로 농장에서 출발한 지 보름 만에 얻은 비료와 트랙

터를 모두 하나님께 반제물로 드리고 나는 운전사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당시 병원에 끌려가서 보니 북한 땅에 얼마나 반동들이 많은지 이건 어느 놈이 연공이고 어느 놈이 반공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많은 반공분자들을 보면서 그동안 반공분자들에 에워싸여서 살았구나 싶었다. 이런 판국에 반공도 연공도 아닌 채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명백백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둘 중 하나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두 진영은 나처럼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애를 썼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확실히 개종시키기 위해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생명이 아닌 반동 선전에 불과한 말씀을 내게 전하기 바랐다.(계속)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뻣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탈출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뇌졸중,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한

배배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구령(救靈)의 산고

마태복음 27:45~54



서울성모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지난날의 허물과 잘 못산 죄값으로 그 귀하신 예수님을 엄청나게 괴롭혀 돌아가시기까지 헤드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남은 평생은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스스로 성령의 감동어린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감적인 신앙체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면서 주님중심으로 보답하며 살려는 태도보다는 평생을 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착각을 하고 자기 입장을 앞세워 현실적으로 세상 조건과 최악에 휩쓸리는 폐단이 있어서 양떼에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하고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킴받고 반성하며 회개, 각성하여 바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 대속(代贖)의 십자가

예수님은 제육 시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의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을 한시로 했기 때문에 아침 여섯시에 해가 뜹니다. 여기서 육시라는 것은 해 뜨는 시간에 여섯 시간을 더하여 계산하면 정오, 낮 12시가 됩니다.

아침 일찍이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출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통하는 성문을 향하는 오르막길을 오르시다 여러 차레 쓰러지셨기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절기를 지키려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보기 위해 길을 매겨서 때문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운 가시관이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주님은 죽음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신후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구 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는 뜻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로 죽기 싫어서 불평하는 말로 호소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왜 그토록 처참한 형벌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던가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스럽도록 버림을 받아 죽어 갔는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정확한 대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내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해산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속의 희생이요, 고난이며, 산고였습니다’하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성

도의 자격이 서둘러 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구원 얻으라고 기록하신 특별계시인 것입니다.

특별계시(特別啓示, special revelation)는 아무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격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이제껏 예수님이 구령의 산고, 즉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치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한 의미라고 확실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할 수 밖에 없는 불행을 접하게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당하신 고통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 “주여, 내가 알고 믿사오니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해 주시느라고 당하신 산고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 구령(救靈)의 산고의 증거(證據)

51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두칸으로 되어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혀 만든 겹짜이 법제입니다. 그 겹안은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만사를 넣은 순금을 입힌 돌항아리, 아론의 썩은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신 법통(法統)의 하나님이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러왔던 그 썩은 지팡이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어진 성소의 모형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출입하는 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높이가 50큐빗이나 되어 이 휘장을 찢고자 하면 아래쪽을 조금 잘라 양쪽으로 사람들이 잡고 당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명이 이루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아 둘 필요가 없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

도록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18에는 “자기가 시험을...(종락)...도우시느니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크고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서둘러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세만 확실하면 여러분들의 죄와 문제로 인하여 망설이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히 도우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활(復活)의 증거

휘장이 찢어진 것 외에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보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자던 성도들의 몸은 무덤 안에 잠든 것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과 동시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사흘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걸어 나와 비로소 거룩한 성(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에스겔 37:1~37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대군을 이루는 엄청난 부활의 역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부활소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던 나사로가 죽는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까지 났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하시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된다는 계산으로 유대교의 종교지도자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도 했

습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시 허락받은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기대하는 궁극적 소망이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진수(眞髓)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리들에게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서 나사로의 부활의 표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되살아났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곧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19~21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독백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예수님께 기대 걸고 따르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겠지만 마귀 앞잡이로 세상에 속한 무리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자녀 되게 하기위해 치루는 해산의 고통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해산의 수고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 위하여 준비하신 기도는 육체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시달리며 죽기까지 헨기를 완전히 죽이고 영적인 사명에 일념해서 영적으로 사명 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같은 땀을 흘리시면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은혜 받고 구원 얻으셨으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구령의 산고를 겪어라 그 영혼을 꼭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예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말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 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전자동 Z-UP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모든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Z-UP 전자동 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웨스턴빌, 1가와 2가 사이)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	--------------------------------	--------------------------------

213-434-1170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다른 것을 보는 눈**

믿음 통해, 자신의 인생 다르게 볼 수 있기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의 특징, 다른 것을 보는 눈
문해력은 세상을 보는 눈 제공
문해력 기르는 데 필요한 자질은 자신을 아는 것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을 보는 눈에 있다.

영화 <기생충>은 비영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영화 역사상 3번째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 수상했다.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에서 두 가족의 만남을 통해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를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빈부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에서 계단이 등장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계단이 빈부 격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같은 계단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로 시작하는 안도현의 시는 깊은 울림을 준다. 연탄이라는 평범한 물건을 통해, 깊은 울림을 준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다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샌드위치 전문점 ‘재플슈츠’는 창업 자금이 부족해 건물 1층에 매장을 열 수 없었다. 어렵게 마련한 매장의 위치는 건물 7층이었다.

누가 7층까지 샌드위치를 먹으러 올까? 다르게 보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재플슈츠’는 7층에서 샌드위치를 낙산사에 배달해 고객에게 전달했다. 다르게 보자, 단점이 장점이 되었다.

다르게 보는 눈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문해력 공부>의 저자 김중원은 그 답이 문해력에 있다고 말한다. 문해력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제공한다.

“문해력은 단순하게 글을 읽는 안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수학과 예술, 건축, 심지어는 의술까지 전혀 배운 적이 없어도 무언가를 볼 때 시각적 문해력이 있으면 전문 지식조차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저자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줄 문장 속은 모른다고 말한다. 겉보기에는 같은 의미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문장이 셀 수 없이 많다. 같은 문장이라도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는 결국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살 좀 빠진 것 같네”라고 말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칭찬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다. 상대방의 말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도 문해력과 관련이 있다.

문해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자질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100개를 배워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배웠지만 100가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을 제대로 아는 힘에 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우화가 있다. 첫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나고 몰았더니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은, “나는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새로운 것을 잘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제대로 배울 가능성이 높다. 문해력의 성장은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문해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일부만 소개한다.

첫째, 자신의 눈으로 읽는 것이다. 세상이 정한 의미를 버리자.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니다. 세상이 정한 의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내면 읽기는 실망에 가까워진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전에 만나지 못한 다른 세상이 보일 것이다.

둘째, 믿을 수 없는 글을 믿어 보라. 최고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과분하거나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글이라 생각하고 스킴치 말고, 그것을 꼭 붙잡아 보자. 곧 그 문장의 주인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셋째, 눈이 빛나게 읽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은 그안에 빛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다. 불굴의 의지로 글을 읽으면 삶에 빛이 나게 된다.

넷째, 비난을 위한 읽기를 멈추라.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읽는 것, 이미 정한 결론에 맞게 내용을 변형해서 지식을 악용하는 독서는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행동이다. 잘 되고 싶다면 싸우고 비난하려고 읽지 말고, 나의 성장을 위해 읽자.

다섯째, 절실하게 믿는 문장을 가지라. 다 버려도 이것 하나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장 하나를 가슴

에 품고 살자. 그 문장은 앞으로 당신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준이 될 것이며, 살아갈 날의 힘이 될 것이다.

여섯째, 인생이 꼬였다면, 읽기로 풀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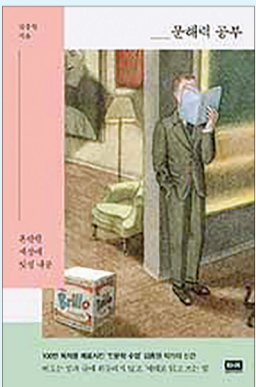
잘 되는 사람은 꼬인 인생을 읽기로 풀다. 인생이 꼬일 때마다 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통해 조금씩 인생을 풀어나간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어떤 상황이 그려지는가?” “나의 경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나는 무엇이 알고 싶나?” “어떤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면 꼬인 인생을 풀 수 있을까?”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인생도 다르게 변한다. 믿음의 시작도 같다.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믿음도 시작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은 환경도 다르게 보게 만든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것, 좌절하고 포기하는 상황에서 인내의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이다.

문해력 공부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문해력 공부
김중원
알에이치코리아 | 288쪽

“이제는 문해력이다”
100만 독자를 매료시킨 ‘인문학 수업’ 작가, 김중원이 읽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힘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지식을 배우는 정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즉 문해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 자체가 하나의 근사한 세계로 완성되어,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

떠도는 말과 글에 휘둘려 혼란한 세상

문해력으로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는 법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어요.”
“잘하려고 할수록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끝이 나요.”
“이게 진심인지, 속이는 말인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답은 ‘문해력(文解力,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

기독교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몰티슈

몰티슈 주부제안
교회학교
마그네틱달력
교과교과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일찍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웹드라마 <D.P.> (1)

넷플릭스 <D.P.>, 기독교 관점에서 나쁘지 않게 보이는 이유

군대 어두운 면 드러내며, 현실 고증 뛰어나다 호평
저열함 깃든 군복무, 그로부터 절감하는 죄악 현실
현재 군복무, 말 그대로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 불과
저열한 현실 인식해야 선과 고결함 갈망하게 될 것

◆군대와 인권: 생존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사회, 군대

군대 내 가혹행위, 구타, 따돌림의 현실을 주된 소재로 삼은 넷플릭스의 <D.P.>가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사와 연출에 있어 분명 소소한 허점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허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적절하게 묘사된 군내 병영생활의 부조리한 모습들 덕에 시청자들, 특히 군 생활 경험자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군대라는 곳은 독특한 세계이다.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룰이 먹히지 않는 곳이다. 통상 하나의 국가라고 하면 단순히 하나의 원칙과 규율로 움직이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이다. 하나의 국가 안에는 여러 유형의 조직과 집단,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그들 각각은 고유한 성격을 지닌 사회를 이룬다.

이들 사이에 일정한 정도의 문화적 동일성이나 시공간적 근접성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각 집단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양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한 개인의 삶이 하나의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될 때 체감되는 차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크다.

군대의 기본 목표는 생존이다. 그들이 지키는 민간인들의 생존, 그리고 군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 힘과 계급의 논리가 생활과 행동양식 전반을 지배한다.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살이 규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내하는 경험

의 모든 부분에서 인권 개념은 약화되고 후퇴된다. 이는 군대라는 집단의 본질에 속한다.

영화 <크림슨 타이드>(1995)에는 군대의 이런 속성과 관련된 명언이 등장한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엘라바마 호 함장 램지 대령(진해크만 분)은 무리하고 위협한 훈련을 강행한 자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함장 헌터 소령(덴젤 워싱턴 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 존재하지만, 민주적 질서를 어느 정도 거부한다. 물론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진정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우선 삶이 존속되어야 보존될 수 있다.

따라서 군 내에서 인권의 약화 및 인권 보장의 보류는 군대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귀속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의 군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목살하고 인권 자체를 짓밟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내면이 충실하다고 하는 미군에서조차 간간히 벌어지는 일이다. 다만 미군은 군대 내부의 부조리한 폭행, 따돌림,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일 발생하는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진지함을 보인다. 아마 이것이 선진군대와 후진군대의 차이일 것이다.

<D.P.>에 묘사된 여러 가혹행위에 대한 시청자들, 특히 군필자들



국군의 병영생활 속 부조리와 폭력, 가혹행위를 주제로 삼은 넷플릭스 TV 시리즈, <D.P.>

의 분노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반사회적 선임병들의 행태 자체를 향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사고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기 일췌인 군 간부들과 지휘관들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향하기도 한다.

우리 국군은 이런 병영 내 부조리에 대해 반성도 없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도 없고, 제대로 된 처벌도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D.P.>는 이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군대와 현실: 본연의 목적을 목살하는 저열한 행태가 만연한 병영 현실

군필자들이 진정으로 듣기 거부해하는 말이 하나 있다. 바로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다”는 말이다. 이는 1950-1970년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뒤쳐졌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군에서는 보직을 맡기기 위해 사병들에게 강력한 규율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당시에는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수준이 사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민간에서 받는 의무교육 및 대학교육

이 군에서 받는 보직관련 교육과 훈련보다 수준이 전반적으로 월등히 높다.

또한 군에서 배우는 훈련과 교육 대부분이 오로지 군에서만 활용되는 특수한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제대로 하고 나면 거의 실생활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즉 지금의 사병 군복무 기간은 말 그대로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다. 복무자 각각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군복무 기간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장병들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꽤나 긴 시간을 희생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군은 이들이 군대 본연의 목적을 목살하는 인권 유린과 폭행, 가혹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자원해서 입대하는 모병제 군대도 이러한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징집제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 거의 전부가 경험하는 군 생활에 유일하게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면 바로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그리 선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회가 통상 배우는 것처럼 공정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군에 가기 전까지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은 가족들의 돌봄과 보호, 또래 집단들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지탱된다. 또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받아온 까닭에 일정한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인권을 보장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군에 징집되어 입대하면 그런 모든 온정이나 권리는 단번에 차단되고 박탈된다. 상명하복의 위계적 계급질서가 다른 어떤 원칙보다도 우선시되며, 군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한 주어지는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는 원래 국민들과 군인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립된 질

서이긴 하나, 하루하루 체감하는 군 생활의 현실에서는 이 질서가 군 간부들과 선임들의 개인적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 진정 군대 본연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혼동될 때가 많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군 복무자들은 그동안 슬하게 들어왔던 정치적·사회적 명분들이 허울좋은 겉치레에 불과하며, 우리 현실의 삶은 법과 원칙보다 힘과 폭력이 앞서고 온갖 개인적인 욕망들이 투쟁하는 현장임을 깨닫는다.

이는 누구에게 전해 듣거나 인터넷 상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감을 동반하는 저열함이다.

<D.P.>는 군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한 반쯤 절감하게 되는 이 암울한 느낌과 현실을 생생하게 되살렸다는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세속적 현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환멸은 항상 누군가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계기로 작용하곤 한다.

<D.P.>에 묘사된 저열한 현실은 사라져야 한다. 이는 엄연한 당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당위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고결함과 멀어진 인간 세상에서 계급질서를 이용한 부당한 가혹행위와 폭력, 압제 같은 악독한 행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이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더 간절하게 선과 고결함을 갈망하며, 병영 내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행태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영화 <크림슨 타이드>의 한 장면. 지휘 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는 부함장 헌터 소령(덴젤 워싱턴 분)과 함장 램지 대령(진해크만 분, 왼쪽부터).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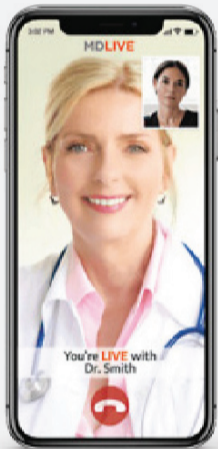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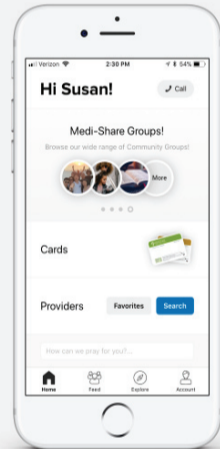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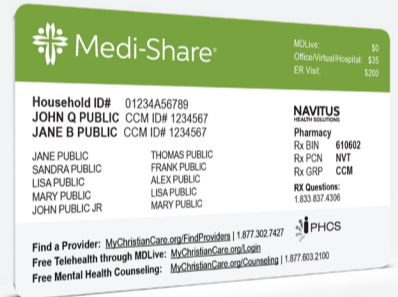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email: prozusa2@gmail.com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주 무보험자 벌금면제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